

# 조선왕조의 역사를 지켜낸 '희생'

## 내장사,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희묵 대사와 충의사 추모다례재 봉행

임진왜란 당시 조선왕조실록을 내장산으로 이안하고 수호하는데 큰 공을 세운 정읍 지역 선조들에 대한 추모 행사가 봉행됐다.

내장사에서는 호국 보훈의 달과 한국전쟁 61주년을 맞아 임진왜란 당시 나라와 백성을 위해 결연히 일어난 정읍지역의 승병들의 활약과 유생들의 충절을 기리기 위한 '승병장 희묵 대사와 안의, 송홍록 등 정읍지역 충의사 추모다례재'를 6월 25일 마련했다.

이날 추모다례재는 지역의 스님과 김생기 정읍시장, 김철수 시의장, 안의, 송홍록 선생 후손, 정읍대대군장병 등 200여명이 동참해 선조들의 애국충절을 기렸다.

추모다례재는 상단불공에 이어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육법공양, 희묵 스님 행장소개, 영산작법, 주모사의 순으로 진행됐다.

내장사 주지 지선 스님은 "임진왜란 당시 백성의 안위를 위해 일어난 의승군은 물론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의 수호자로서 희묵 스님의 역할과 의미를 선양하는 것은 올바른 역사를 대중에게 알린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추모다례재를 봉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내장사는 다례재의 정례화를 통해 희묵 스님과 안의, 송홍록으로 대표되는 정읍지역 유생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정읍 지역 역사와

문화 재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희묵 스님을 비롯한 의승군이 수호한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태조에서부터 철종에 이르는 25대 472년, 17만 2000여 가지의 일과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조선왕조의 공식 국가기록서이며 세계최대 규모의 단일 역사서다. 1997년에는 유네스코 선정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됐다.

한편 이 실록은 당초 춘추관 사고 외에 지방 사고에도 1부씩 보관돼, 전란 중 춘추관, 충주, 성주 사고가 소실되거나 왜적에게 침탈당했다. 그러나 전주사고 실록은 희묵 스님을 비롯한 의승군의 공로로 내장산에 옮겨져 무사히 보관될 수 있었다. 내장산으로 옮겨진 뒤 안의와



송홍록은 매일같이 교대로 실록을 지키면서 사고를 떠나지 않았다. 당시 영은사(현 내장사)의 희묵 스님과 의병 100여 명도 함께 실록을 굳건하게 지켰다. 이후 국가에서는 이 전주사고본을 근거로 재조에서 명

중까지 13대에 걸친 실록을 다시 제작했다. 마니산에 보관된 전주사고본은 병자호란 때 크게 훼손됐으나 현존 때 보수해 속종 4년에 정국산성에 사고를 지어 옮겨졌다.

조종제 전북지사장

### 자비신행회, 일미 스님 특강 개최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는 광주지역 불교계 자원봉사자 회원들을 위한 일미 스님 특별강연을 6월 29일 개최했다.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강좌에서 일미 스님은 '서구사회의 불교 동향'이라는 주제로 현재 미국의 불교현황의 특징 등을 설명했다. 강연에서 일미 스님은 "미국 불교의 특징은 개방성, 수행중심, 진정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며 "이는 한국 재가불자들이 고민해야 될 주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구체적 실천으로 "진리나 사회적 현상 등을 먼저 알고 열린 시각을 갖고, 일상 속에서 수행을 통해 불교적 체험의 시간을 일반화할 것, 마지막으로 스스로 허물을 드러내고 참회하는 진정성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 한의술로 자비 나눔 마당

#### 우석대 한의과 350여 어르신 무료 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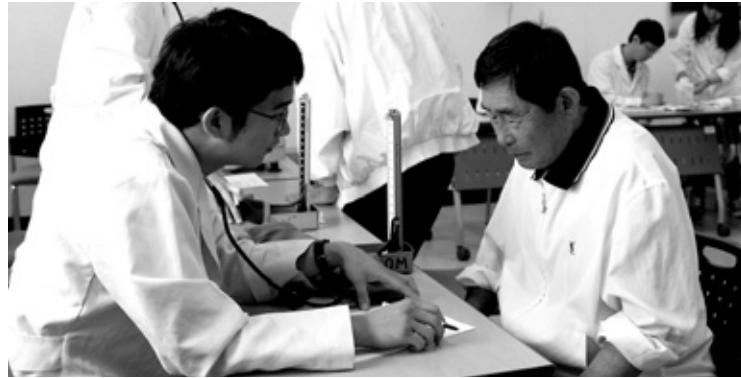
우석대 한의과대학 의료봉사 동아리 F.O.O.M가 6월 27~29일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완)과 연계해 지역주민을 위한 한방의료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김락형 교수를 비롯해 한의과대학 학생 24명이 참여했으며, 복지관과 지역경로당(대성경로당, 제일경로당)에서 350여 명의 어르신들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방무료진료와 침구

시술을 실시하고 건강의약품을 전달했다.

치료를 받은 박규례(75세, 성송면 무송리) 할머니는 "오랜 농사일로 온몸이 쉬고 아팠는데, 손자 손녀같은 학생들이 침을 놔주고 뜸도 따주니 몸이 한결 가볍고 좋아졌다"며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도완 스님은 "세상은 혼자 살 수 없으며 베푸는 만큼 돌아오게



된다"며 "농어촌 지역주민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의료봉사 활동이 함께 호흡하는 세상을 만드는 좋은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관은 6월 30일 'MBC 드림장학금'과 '난치병어린이돕기' 지원 사업에 선정돼 어려운 이웃들에게 장학금과 후원금을 전달했다.

조종제 전북지사장

### 요양원 '송광실버하우스' 개원

#### 순천 지역 노인복지 발전 기대

순천지역 어르신들의 노후를 모실 불교계 요양원이 개원했다.

순천지역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생활을 할 수 없는 어르신들을 위한 불교계 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바라밀 송광실버하우스가 6월 29일 개원식을 가졌다.

이날 개원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종회의장 보선 스님, 사회복지법인 바라밀 이사장 현고

스님을 비롯해 많은 대중이 참여했다.

개원식에서 현고 스님은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내 집보다 좋은 시설과 가정 같은 분위기, 자식된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공양하는 요양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원한 송광실버하우스는 지역의 우수종합병원 및 노인전문병원과 업무협력을 통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풍부한 지



식과 오랜 경험을 지닌 우수한 전문 인력의 상담, 간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 서비스 내용은 목욕, 일상생활지원, 이마용서비스를 하는 요양 서비스와 건강검진을 하는 의료

서비스 그리고 재활사정, 물리치료, 운동치료를 비롯해 치매예방교육, 노래, 영화, 종교지원과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기능회복서비스, 영양지원, 지역사회 지원 개발 등을 진행한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손문철 대구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 "남원 불교를 모범 신행지역으로"

#### 前 남원불교청년회장 황인술 거사

전북 지역에서 신행단체들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다고 하는 남원지역에서 제2대 청년회장을 지낸 황인술 거사가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작은 인연이 큰 인연으로 발전하게 된 경우다.

17년 전 남원에서 황인술 거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광고사로 한 스님이 불교행사에 사용할 현수막을 주문했고, 그렇게 황 거사의 불교와의 인연은 시작됐다.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되면서 황인술 거사는 스님의 권유로 마침 개원을 준비 중인 남원불교대학에 1기로 입학했고, 본격적인 불교활동이 시작됐다.

"당시 마땅한 건물이 없어 예식장 건물을 빌려 운영 중이던 당시 선원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던 황인술이 지역의 젊은 불자들을 모아 남원불교청년회를 창립하면서 본격적인 청년회 활동을 펼치게 됐습니다."

그렇게 청년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초대 서기수회장에 이어 2대 남원불교청년회장의 소임을 맡게 됐다. 황인술 거사는 청년회장을 맡으면서 회원들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춘향골 수련원에서 전북지구청년회원들의 수련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회원들과 가족들의 단합에도 힘썼다.



지역의 불교와 관련된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두고 나서야만 직성이 풀린다는 황 거사는 해마다 한 달 이상의 준비기간을 들여 장엄 등 만들기에도 나서고 있다. "불교청년회를 비롯한 젊은 불자들이 많이 늘어나 지역 불교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황인술 거사는 특별한 수행보다도 생활 속 불교 활동이 곧 수행이라고 생각한다. 황 거사는 현재도 남원불교청년회 지도위원과 남원불교대학 홍보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왕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황인술 거사는 "지역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남원 지역이 가장 모범적인 신행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종제 전북지사장

### 포항 불교사암연합회 신임 회장

#### 제12대 회장에 포항 보경사 주지 효웅 스님

포항불교사암연합회가 6월 27일 정기 이사회와 정기 총회를 열고 12대 회장에 포항 보경사 주지 효웅 스님을 추대했다.

새롭게 추대된 12대 포항불교사암연합회장 효웅 스님은 1982년 10월 법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출가, 총무원 사회국장, 감사국장, 재정국장 등을 역임했다. 불국사 사회국장, 호법국장을 거친 뒤 2006년 불국사 선원에서 수행정진해오다 올해 초 포항 보경사 주지로 임명됐다. 사암연합회장에 추대된 효웅 스님은 앞으로 포항불교사암

연합회의 결속과 경복 도해한 지역 불교계와 교류할 계획을 밝히는 등 포교에 대한 남다른 원력을 피력했다. 또 지역불교계의 권위를 훼손시키려는 이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효웅 스님은 7월 1일부터 시작해 앞으로 3년간 포항불교사암연합회장직을 수행한다. 포항불교사암연합회는 절고 폐기 넘치는 새로운 회장의 추대로 앞으로 연합회의 활동 모습들도 한층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고무돼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격과정	교육기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총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의 02)3147-2020 [www.kile.or.kr](http://www.kile.or.kr)

지부교육원

창원 055-543-6155 호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산 051-441-0111  
울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구 053-566-1116 해운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 단기출가자 및 행자 모집

- 기간 : 일주일 이상 자유, 전액무료
- 대상 : 만 50세 미만 남자, 출가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행자 생활에 준하며 사찰의 기도, 참선, 공부, 율력 등 모든 수행에 동참
- 단체 시간외 1인 1실, 숙박
- 수련 후 바로 출가할 경우 모든 뒷바라지
- 대구큰절과 감포 무문관 선방에서수행

\* 행자(예비스님)모집합니다.  
문의 : 053)474-8228, 010-2488-8228

### 무문관 재가수행자 및 스님 모집

- 입방 후 문 폐쇄, 하루 한끼 공양 제공
- 연령 제한 없음. 남,녀 선착순
- 기간 : 보름이상 자유
- 입방날짜는 개인별로 함
- 동참금 있음
- 문의 : 054)753-8228

\* 감포무문관에서 동안거 입방하실 스님 모집합니다.  
• 대상 : 법랍 10년 이상인 비구, 비구니  
• 선착순 모집  
• 문의 : 010-2488-8228

회주 우학스님의 신간  
"하루 한가지 마음공부법", "감사하고 사랑하며"

쾌적한 법당형 극락 납골 봉안당  
문의 : 053)474-8228, 010-6296-0108